

‘사람중심 경제’에 재계도 ‘화답’

문 대통령 시정연설서 “경제를 새롭게 할 것” 발언에 동참의사 밝혀… 일자리창출 위해 논의 필요 의견도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재계는 공감과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나 양극화 문제와 관련해 기업이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구조개혁과 상생협력, 혁신성장을 통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주문했다.

1일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문 대통령 시정 연설에 대해 “경제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 성장을 이루는 것은 오랜 과제”라며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경제계도 노력할 것”이라고 운을 폈다.

이어 “최근 혁신성장 말씀도 있어

분배와 성장 두 바퀴가 조화를 이루면서 굴러갈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 본부장은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이고, 인위적으로(단시간에) 확 바꾼다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며 “벤처나 창업 같은 분야를 늘려 다른 분야를 북돋운다는 부분에 방점이 있다고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대기업 관행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고 상생 협력 같은 긍정적인 캠페인도 대기업들이 해나가야 한다”며 “구조를 바꾸는 부분은 대기업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대통령께서 밝히신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방향에

경제정책 우선 순위를 둔 것은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혁신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가 활력을 찾고 기업이 정신이 반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며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워 경제 패러

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재벌 대기업이 빠르게 우리 경제를 빈곤으로부터 일으켜 세운 점은 인정하지만, 정체된 성장과 고단한 국민의 삶에서 보듯 더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에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며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이고 혁신 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국민연금공단,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부문 대상

국민연금공단은 1일 (사)한국인문인 협회와 (사)서비스마케팅학회 공동 주최 2017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에서 국민연금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무용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오른쪽)는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오디움에서 열린 2017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기초수급자, 결혼이주여성 등으로 구성된 NPS 카페 36.5 협동조합

를 지원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수익의 50% 이상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선순환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었다.

NPS 카페 36.5 협동조합은 현재 14명의 직원이 잡실점, 대구점, 부산점, 강남점, 전주점 등 총 5개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 몽골,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주여성 3명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뉴시스

건강관리로 보험료 할인 받으세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출시... 질병발생 확률 감소 손해를 하라

스마트기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 운동하거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건강지표를 달성하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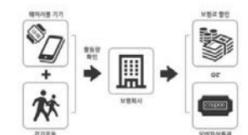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계약자의 경우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보험사는 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 감소로 손해율이 하락하는 ‘윈-윈(win-win)’ 구조의 상품이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보험업계가 신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우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적용대상은 ‘질병·사망보험’ 상품이다. 자동차보험, 재해사망보험 등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은 제외된다.

저축성 보험과 질병 관련 보험이 혼합된 상품의 경우에는 질병·사망 보장에 한정해 적용한다. 제공되는 혜택은 웨어러블 등 스



마트기기 구매비용 보전과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시백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이다. 주유쿠폰, 식기세트 등 건강관리 등과 무관한 상품 제공은 제한된다.

건강관리 노력 측정은 국내·외 보험통계, 학술·연구자료 등에서 계약자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료 기준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기초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출시 가능한 대표적인 상품은 각종 스마트기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 운동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일 시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컨대 스마트워치 등과 연동해 연간 360만보 달성 시 다음년도 보험료의 5% 할인 또는 일시금 지급 등의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또 건강검진 결과 등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상품도 출시 가능하다.

전북농관원, 김장 재료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등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중 수입량이 많은 업체와 취약업체를 선정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전북지원 특별사법경찰 100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고춧가루의 경우 유통과정 중 포대갈이나 원산지 표시 변경·훼손 흔적을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할 계

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김치 제조업체와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제공하는 김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번 김장철 단속과 병행해 TV, 인터넷, 블로그 등에 맞섬으로 소개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유명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뉴시스

전북중기청, 찾아가는 R&D 컨설팅 서비스 실시

중소기업 R&D과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추진 및 R&D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2017년 찾아가는 R&D 컨설팅 서비스 가 실시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공동으로 2017년 찾아가는 R&D 컨설팅 서비스를 중기청 대회의실에서 오는 11월 28일 낮 12시 30분에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기업, 완료기업,

탈락기업으로 김광재 청장은 “2017년 찾아가는 R&D 컨설팅서비스를 통해 R&D참여기업의 애로요인 해소와 과제 성공률을 높여 고객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굴된 현장의 고객목소리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17년 찾아가는 R&D 컨설팅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www.mss.go.kr/forbubk)의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컨설팅 상담 요청 내용을 작성해 오는 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추석연휴 효과’ 전체 카드 승인 금액 192조 5000억원

전년동기대비 4.4% 증가... 여행수요 영향

최장 10일에 이르는 긴 추석연휴로 인해 올해 3분기 신용·체크카드 등 전체카드 승인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신금융연구사가 발표한 2017년 3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카드 승인금액은 총 192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신용카드 승인금액이 150조6000억원으로 3.9%, 체크카드 승인금액이 41조 6000억원으로 6.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카드 승인건수도 47억5000건으로 14.4% 늘어났다.

이처럼 전체카드 승인실적이 소폭 개선된 것은 10일간의 추석연휴를 맞아 내국인의 여행 수요가 늘면서 사전 카드결제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생 및 직장인들의 여행방학·휴가로 인한 소비 수요 증가, 자동차 판매 증가, 온라인을 통한 소매 판매 증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카드소비 주체별로 보면 개인카드 승인금액이 156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9% 증가했다. 반면 법인카드(36조4000억원)는 법인들의 국제 카드납부 유인 약화현상 지속으로 18.9% 감소했다.

연구사는 “법인카드 승인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개인카드 승인실적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3분기 국내 소비 흐름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3분기 전체카드 평균 승인금액은 전년동기대비 8.8% 감소한 4만488원이었다. 신용카드가 9.0% 감소한 5만2333원, 체크카드가 7.6% 감소한 2만2271원이었다.

업종별 카드승인실적을 보면 여행수요 증가로 인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9.8%↑)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어 운수업(18.4%↑), 도매 및 소매업(12.0%↑) 등의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뉴시스

기사제보 288-9700

www.i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수박



장미



미나리



호박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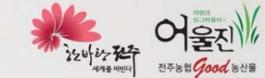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 오태식
상임이사 (경제) 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중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 Good 농산물